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가 칼럼



이성원
SW융합학 교수

우리는 당신이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커다란 꿈을 이루기 위한 자그마한 도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빛나는 꿈을 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소프트웨어 전공자인 우리에게 물으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배우고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제안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멋진 수식어로, 혹은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무서운 베스트셀러 제목으로, 혹은 “대량 실업자 시대”라는 겁박으로 이 글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캠퍼스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생겼으니, 학과장으로서 흥보를 하고자 이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다소 뜻밖의 계기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경희가족이라면 한번은 제목을 접했을 ‘미래대학리포트 2015’. 55%의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를 ‘취업’이라고 답할 때, 동시에 34%의 학생은 ‘가치실현’을 이유로 꿈았습니다. 다른 대학이 비전공자를 소프트웨어전공자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경희대학교 학생이 자아와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고민했습니다. 또한 본인 전공의 전공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삼아 취업과 창업을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목표가 아닌 도구입니다. 인간의 삶이 보다 편안해지고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기술 발전의 목적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DB

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 보다 가치있는 일을 이루어 가도록 바라는 것이 기술을 만든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쓰지 라는 기술적 사고를 중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하는 것을 먼저 꿈꾸어야 합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의 사람과 직업을 소프트웨어 전공자로 대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언론사는 웹서비스 및 현실 문제에서 소프트웨어 전공자보다 관련 전문 지식을 확보한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련 전문 지식을 Domain-Knowledge라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사실은 소프트웨어 보다는 선형대수, 통계, 확률 등 수학적 지식이 중요하며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되, 제일 중요한 정보는 목표 대상이 되는 분야의 전공 지식입니다. 신규 직업인 Data Scientist의 3대 역량도, ‘수학적 지식’과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그리고 분석할 대상이 되는 분야의 ‘전문 지식’입니다. 본인이 전공 지식기반의 꿈을 꾸면, 소프트웨어는 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생산적으로 이루도록 도와주는 작은 도구입니다.

미국에서는 Micro College라는 소

프트웨어 교육 방식이 유행입니다.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 4년의 대학 학부 과정을 다시 교육하지 않고 수개월의 단기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수강자 목적 지향으로 선별된 교육 과정”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현실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집중적인 교육을 수행합니다. 세계최고의 창업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미국의 ‘싱글래리티대학’ 역시, 10주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서 창업전문가를 양성하는 초단기 과정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과간의 벽을 넘어서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꿈을 위한 도구일 뿐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면, 다음으로 권하고 싶은 덕목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녀야 하는 학과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 “이 문제는 OO학과 사람이 풀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학과라는 장벽을 넘어서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한 공부를 하고, 실천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학과의 졸업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활용하는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최고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음악 소프

트웨어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술 소프트웨어는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고 사용하지,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기계화가 가능한 것을 기계화하여, 해당 분야에 속한 사람이 더 고차원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진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된 인력을 보다 고차원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재교육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보다 고차원으로 가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과간의 벽을 넘어서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웨어 세상은 옵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걱정이 된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소프트웨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이루면 됩니다. 보다 고차원적인 고민과 자기계발을 이루어 가십시오. ‘전공’은 사랑하되, ‘학과의 벽을 넘어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여마당

정혜윤
(자율전공학 2017)



그냥 아는 사람 이야기

아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 친구의 꿈은 검사였다. 사법시험에 폐지된 지금,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로스쿨 가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상경을 결심했다. 첫 입시의 결과는 좋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는 재수학원비조차 마련하기 힘들었다. 결국 선택한 것이 ‘독학재수’였다. 다행히도 우리학교에 들어오는 데 성공했더란다.

대학을 진학하며 그 친구가 꿈꾼 것은 분홍빛 캠퍼스 로망도, 청춘을 불태우는 밤도 아닌 소소한 캠퍼스 나날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나날조차 ‘돈’이 필요했고, ‘지방 유학생’으로 생활고를 예상치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소득분위 덕에 4년 장학을 약속받아 학비 걱정은 덜었다. 그 친구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월세와 식비, 교통비, 책값 등을 모두 친구의 몫이었다. 제일 별이 좋다는 과외를 선택했다. 수업은 오전으로 몰고, 매일 밤늦도록 과외를 했다. 짬짬이 카카오톡으로 임시 상담을 해주는 컨설팅 아르바이트도 했다.

소소한 대학생 생활 꿈꿨지만…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

현실은 잔혹했다. 먹고 살기 위해 수업 외 시간을 모두 할애했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학점 기준이 마음을 짓눌렀다. 장학금을 받는 조건에는 봉사도 포함됐다. 생활을 위해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장학금을 위해 공부와 봉사를 해야 했다. 공부를 할 시간을 내려면 과외를 줄여야 하고, 그러면 생활을 못하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생활비 장학을 찾아봤다. 생활비 장학은 교내외를 찾아봐도 극소수였고 그나마도 특정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던가, 특정 분야에 진출할 인재여야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 따라붙었다. 학점만 충족하면 등록금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저소득층의 학업이 보장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미쳤다. 대학생의 58%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친구가 정말 힘들어 했던 건 이 모든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반복될 일이었다.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 집에 보태야 했고 동아리, 학회, 대외활동은 남의 일일 뿐이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용돈으로 각종 친교모임, 술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시험기간엔 공부만 할 수 있는 이들이 보였다. 부러운 마음에 몰래 눈물을 훔친 적도 있다. 왜 이런 작은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대학생 개인의 잘못일까, ‘흙수저’로 태어난 탓일까, 장학제도의 허술함 때문일까. 이제 누굴 탓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탓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냥 내가 아는 사람 이야기다.

고작 21살의 그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 우리사회와 대학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고찰해봐야 한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J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